

2024 늘잠이 파이널 모의고사
역사 영역 답안지

한국사 영역

1.	③	2.	⑤	3.	④	4.	③	5.	①
6.	②	7.	②	8.	①	9.	②	10.	④
11.	⑤	12.	⑤	13.	⑤	14.	⑤	15.	④
16.	③	17.	①	18.	①	19.	④	20.	③

1번 ③ (★☆☆☆☆)

농경, 목축, 읍집 등의 키워드를 통해 (가)는 신석기 시대임을 알 수 있다. 돌도끼는 간석기의 일종이다. ①의 고인들은 청동기 시대, ②의 모내기법은 고려 시대, ③의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 시대, ④의 산수 무늬 벽돌은 삼국 시대, ⑤의 불국사와 석굴암은 남북국 시대이다.

2번 ⑤ (★★★★☆)

무령왕이 언급된다는 점, 두 번째 수도가 공주에 있었던 웅진성이라는 점 등을 통해 (가)가 백제임을 알 수 있다. ①은 조선 세종, ②는 제2차 갑오개혁, ③은 발해, ④는 고려, ⑤는 백제와 관련되어 있다.

3번 ④ (★★☆☆☆)

전쟁 초기 관군이 무너졌다는 점, 의병이 일어났다는 점, 광재우가 의병장이었다는 점 등을 통해 밑줄 친 '전쟁'이 임진왜란임을 알 수 있다. ①은 6·25 전쟁, ②는 병자호란, ③은 고려·몽골 전쟁, ④는 임진왜란, ⑤는 고려·거란 전쟁이다.

4번 ③ (★★★★☆)

각지의 특산물을 공납으로 구하는 대신 공인을 통해 장지에서 구하게 되었다는 점, 도고의 출현을 촉진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밑줄 친 '이 법'이 대동법임을 알 수 있다. 방납의 폐단이 심각해지자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①은 개화기, ②는 일제 강점기, ④는 제1차 갑오개혁, ⑤는 고려 광종 대 있었던 일이다.

5번 ① (★★☆☆☆)

개경이 언급된다는 점, 왕의 시호에 '충(忠)' 자가 있다는 점, 기철과 정동행성, 이재현이 언급된다는 점, 동시대에 원이 존재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이 시기가 고려 원 간섭기임을 알 수 있다. ①은 고려, ②는 신라, ③은 개화기, ④는 개화기, ⑤는 신라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6번 ② (★★☆☆☆)

분청사기, 문인화와 같이 조선 전기 학문 및 예술에 해당하는 선지를 고르면 된다. ①의 탈춤은 조선 후기, ②의 칠정산은 조선 전기, ③의 한국통사는 일제 강점기, ④의 삼국사기는 고려 전기, ⑤의 팔만대장경은 고려 후기에 해당한다.

7번 ② (★★★★☆)

(가)는 영은문이 있던 자리에 독립문을 세운 것으로 독립 협회가 설립 되고 얼마 안 된 시기인 1896년에 있었던 사실이다. (나)는 황국 협회의 공격으로 만민 공동회가 해산된 것으로 독립 협회가 해산된 1898년에 있었던 일이다. ①은 고려 전기, ②는 1897년, ③은 6·25 전쟁 중인 1950년, ④는 조선 후기인 1862년, ⑤는 일제 강점기인 1919년에 있었던 일이다.

8번 ① (★★★★★)

청을 시찰하고 돌아왔다는 점, 기기창을 세웠다는 점 등을 통해 (가)가 영선사임을 알 수 있다. ①은 영선사, ②는 헤이그 특사, ③은 유엔 임시 위원단, ④는 조사 시찰단, ⑤는 보병사이다.

9번 ③ (★★★★☆)

집강소가 언급된다는 점, 반외세, 반봉건을 주장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가) 운동이 동학 농민 운동임을 알 수 있다. ①은 민족 유일당 운동, ②는 동학 농민 운동, ③은 예송 논쟁과 환국 정치, ④는 좌우 합작 운동, ⑤는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이다.

10번 ④ (★★★★☆)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한 단체라는 점, 자기 회사와 태극 서관을 설립 하였다는 점,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웠다는 점,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등이 학교를 세웠다는 점 등을 통해 (가)가 신민회임을 알 수 있다. ①은 영조, ②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③은 김대중 정부, ④는 신민회, ⑤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이다.

11번 ⑤ (★★☆☆☆)

헌병 경찰제가 보통 경찰제로 전환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3·1 운동을 계기로 일제의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①은 1980년대, ②는 조선 후기, ③은 1970년대, ④는 1930년대이다.

12번 ⑤ (★★★★★)

제너럴서먼호 사건이 있었다는 점, 조만식이 몰산 장려 운동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점 등을 통해 밑줄 친 '이곳'이 평양임을 알 수 있다. ①은 만주 지역, ②는 경주(금성), ③은 신안, ④는 공주(명학소), ⑤는 평양(서경)이다.

13번 ⑤ (★★★★★)

공화제를 지향하고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조소앙임을 알 수 있다. 조소앙을 모르더라도 최소한 주어진 힌트가 모두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가리킨다는 사실은 알아야 한다. ①은 방정환, ②는 장면, ③은 양기탁과 베델, ④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이다.

14번 ⑤ (★★★★☆)

조선 신공이 세워졌다는 점, 내선일체를 강조하였다는 점, 신사 참배가 강요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민족 말살 통치기인 1930~40년대를 알 수 있다. ①은 흥선대원군 집권기, ②는 조선 전기, ③은 박정희 정부 시기, ④는 김영삼 정부 시기, ⑤는 민족 말살 통치기이다.

15번 ④ (★★★★☆)

민족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항일 비밀결사라는 점,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 김원봉이 단장을 맡았다는 점 등을 통해 (가)가 의열단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ㄱ은 대한 광복회, ㄴ은 신간회이다.

16번 ③ (★★☆☆☆)

호헌 절폐, 독재 타도를 외쳤다는 점,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밑줄 친 '시위'가 6월 민주 항쟁임을 알 수 있다. ①은 항일 의병 운동, ②는 조선 전기 사화, ③은 6월 민주 항쟁, ④는 한일 기본 조약, ⑤는 미군정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17번 ① (★★★★☆)

이광수, 최남선이 속한다는 점, 원래 독립운동가였는데 1920년대 초부터 친일 행보를 보였다는 점 등을 통해 (가)가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임을 알 수 있다. ①은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②는 박정희 정부, ③은 북만주 독립군, ④는 이승만 정부, ⑤는 조선 총독부이다.

18번 ① (★★★★☆)

모스트바 3국 외상 회의는 광복 직후인 1945년 12월에 개최되었다. 광복은 1945년 8월, 5·10 총선거는 1948년이므로 (가)가 맞다.

19번 ④ (★★★★★)

재벌이 경제 개발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 6·8 부정 선거를 일으켰다는 점 등을 통해 박정희 정부임을 알 수 있다. ①은 김대중 정부, ②는 일제 강점기, ③은 노태우 정부, ④는 박정희 정부, ⑤는 노무현 정부 시기의 일이다.

20번 ③ (★★☆☆☆)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 노사정 위원회가 설치되었다는 점,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다는 점 등을 통해 외환 위기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①은 1920년대, ②는 박정희 정부 시기, ④는 이승만 정부 시기, ⑤는 1930년대의 일이다.

동아시아사 영역

1.	①	2.	④	3.	①	4.	④	5.	③
6.	①	7.	⑤	8.	③	9.	③	10.	⑤
11.	④	12.	②	13.	②	14.	③	15.	⑤
16.	①	17.	⑤	18.	①	19.	②	20.	②

1번 ① (★☆☆☆☆)

황허강 하류에서 발달하였다는 점, 룡산 문화로 계승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다윈커우 문화임을 알 수 있다. ①은 다윈커우 토기, ②는 양사오 토기, ③은 홍산 토기, ④는 빗살무늬토기, ⑤는 조몬 토기이다.

2번 ④ (★☆☆☆☆)

적산 법화원에서 장보고의 도움으로 은거하며 당에서 유학한 일본 승려라는 점에서 엔닌임을 알 수 있다. ①은 현장, ②는 의상, ③은 혜초, ④는 엔닌, ⑤는 혜자이다.

3번 ① (★☆☆☆☆)

무제의 공격이 나타난다는 점, 연에서 이주한 자로써 준왕을 몰아낸 위만이 간접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등을 통해 (가)가 고조선임을 알 수 있다. ①은 고조선, ②는 신, ③은 몽골(원), ④는 한, ⑤는 일본이다.

4번 ④ (★☆☆☆☆)

중국 황제(태후의 남편)를 백등산에서 포로로 잡은 바 있다는 점 등을 통해 밑줄 친 '나가' 흉노의 목목 선우임을 알 수 있다. ①은 나카노오에 황자, ②는 북위 효문제, ③은 후한 광무제, ④는 흉노 목목 선우, ⑤는 진시황제이다.

5번 ③ (★★★★★)

북위 효문제가 언급된다는 점, 북위가 고구려와 남제의 연결을 견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5세기 말엽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서진 성립은 265년, 고구려의 낙랑군 축출은 313년, 백제의 한강 유역 상실은 475년, 다이카 개신은 645년, 발해 건국은 698년, 헤이안쿄 건설은 794년이다.

6번 ① (★☆☆☆☆)

한반도 남부에 전방후원본이 조성되었다는 점, 일본으로 건너가 지배층이 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가)가 도왜인 집단임을 알 수 있다. ㄱ은 도왜인 집단, ㄴ은 북위, ㄷ은 고조선 유민 집단이다.

7번 ⑤ (★☆☆☆☆)

일본과 조선이 공식적으로 무역하고 있다는 점, 당시 막부가 신패를 발급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18~19세기 중엽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①은 고려, ②는 15~16세기, ③은 14~16세기, ④는 16세기 중엽, ⑤는 청대인 17~19세기에 있었던 사실이다.

8번 ③ (★☆☆☆☆)

(가)는 몽골이 서하와 호라즘을 정벌하는 내용으로 칭기즈 칸 대의 일이다. (나)는 원이 고려와 더불어 일본 원정을 떠나는 내용으로 쿠빌라이 칸 대의 일이다. ①은 북송, ②는 금, ③은 몽골 우구데이 칸 대(1232년), ④는 헤이안 시대, ⑤는 정강의 변(1126년) 시기이다.

9번 ③ (★☆☆☆☆)

테라코야가 언급된다는 점을 통해 (가)가 에도 막부임을 알 수 있다. 에도 막부(청/조선 후기) 시기에는 서민 문화와 실용을 추구하는 학문이 발달하였다. ①은 조선 후기, ②는 조선 후기, ③은 당, ④는 청, ⑤는 에도 막부 시기의 문화이다.

10번 ⑤ (★★★★★)

직산 전투가 언급된다는 점, 조선과 왜적이 싸우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임진왜란(정확히는 정유재란)임을 알 수 있다. (가)는 조선과 아군이고 왜적을 공격하고 있으므로 명(1368~1644)이다. ㄱ은 1653년, ㄴ은 1557년, ㄷ은 1602년에 있었던 사실이다.

11번 ④ (★★★☆☆)

후진의 석경당이 군사 원조를 대가로 연운 지역의 16개 주를 대가로 바쳤다는 점에서 (가)가 거란(요)임을 알 수 있다. ①은 명·청, ②는 돌궐, ③은 고려, ④는 거란(요), ⑤는 송이다.

12번 ② (★★★☆☆)

지도에 나타난 경로를 통해 환관 정화의 항해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밑줄 친 '황제'는 영락제임을 알 수 있다. ①은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②는 명 영락제, ③은 청 순치제, ④는 명 건문제, ⑤는 명 정통제이다.

13번 ② (★★★☆☆)

후삼국 시대 한반도의 국가들과 사절단을 교환하였다는 점, 국가 사무가 최고 기관인 태정관에 보고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가)가 일본임을 알 수 있다. ①은 흉노, ②는 일본, ③은 북주·수·당, ④는 신라, ⑤는 송·원·명·청이다.

14번 ③ (★★★★★)

난징 조약 이후 추가 개항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영국 상인의 자유로운 통상을 허용한다는 점 등을 통해 (가)가 텐진 조약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의 자주 독립권을 인정한다는 점, 청이 일본에 배상금 2억 냥을 제공한다는 점 등을 통해 (나)가 시모노세키 조약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ㄴ에서 텐진 조약은 일본과는 상관이 없으며, ㄷ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은 타이완과 평후 제도의 할양을 규정하였지만, 텐진 조약은 영토 할양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15번 ⑤ (★★★★★)

자료에서 '봉천 교외에서 남만주 철도가 폭파되는 사건' 2년 뒤에 제5차 공산당 소탕 작전이 시작되었다고 쓰여 있으므로 만주 사변(1931) 2년 뒤인 1933년임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루이진 점령 직전에 홍군의 대장정(1934~1935)이 시작되었으므로 밑줄 친 ㉠ 기간은 1933년부터 1934년까지 약 1년간이다. ①에서 위안스카이가 황제로 즉위한 해는 1916년, ②에서 우창 신군의 봉기가 일어난 해는 1911년, ③에서 시안 사건으로 장제스가 감금된 해는 1936년, ④에서 미드웨이 해전이 발발한 해는 1943년, ⑤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은 1932년부터 1940년대 초까지이다.

16번 ① (★★★★★)

밑줄 친 '본 협정'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의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이 목적이므로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 협정임을 알 수 있다. ㄱ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1953년 8월에 체결되었다. 시기로 구분하기보다는 인과관계로 구분하자. ㄴ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ㄷ은 8·15 광복 직후 이루어진 연합국 회의에 관한 설명이다.

17번 ⑤ (★★★☆☆)

서태후 공친왕 정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한인 관료가 주도하였다는 점, 신식 무기와 신식 군대를 개발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가)가 양무운동임을 알 수 있다. ①은 변법자강 운동, ②는 태평천국 운동, ③은 의회 개설 운동, ④는 태평천국 운동, ⑤는 양무운동이다.

18번 ① (★★★★★)

은이 공행을 거쳐 외양을 유출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 흡식소를 단속하면 유독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을 통해 (가)가 아편임을 알 수 있다. ㄱ은 아편, ㄴ은 석유와 철강, ㄷ은 낫그릇 등 금속과 미곡이다.

19번 ② (★★★☆☆)

사회주의적 집단 체제, 철강 증산을 위한 노동력 동원, 인민 공사 등으로 대표되는 대약진 운동을 전개한 (가)는 마오쩌둥이다. ①은 옌푸, ②는 마오쩌둥, ③은 덩샤오핑, ④는 박정희, ⑤는 천수이볜과 김대중이다.

20번 ② (★★★☆☆)

(가)는 아주 화친회가 창립된 도쿄, (나)는 안중근 의거가 있었던 하얼빈이다. ①은 뉴욕, ②는 도쿄, ④는 알타, ⑤는 평양과 파주이다.

세계사 영역

1.	①	2.	④	3.	④	4.	②	5.	④
6.	③	7.	①	8.	①	9.	①	10.	⑤
11.	④	12.	②	13.	⑤	14.	⑤	15.	②
16.	③	17.	⑤	18.	⑤	19.	④	20.	②

1번 ① (★★☆☆☆)

도시 국가인 우루크가 언급된다는 점, 천문학과 점성술이 발달하였다는 점, 일찍이 농경이 발달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메소포타미아 문명임을 알 수 있다. 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②는 에게 문명, ③은 이집트 문명, ④는 인도 문명, ⑤는 중국 문명이다.

2번 ④ (★★☆☆☆)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 등을 통해 로마 문화를 알 수 있다. ①은 고대 그리스 문화, ②는 중세 봉건 사회의 문화, ③은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 ④는 로마 문화, ⑤는 르네상스 문화이다.

3번 ④ (★★☆☆☆)

왕조가 처음 세워졌을 때 공신들이 지방을 분급받아 자치적으로 다스렸던 제도는 군국제이다. 군국제를 철폐하였다는 점, 명령을 지방까지 관철하는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황제'가 한 무제임을 알 수 있다. ①은 북위 효문제, ②는 신 왕망, ③은 한 고조, ④는 한 무제, ⑤는 진시황제이다.

4번 ④ (★★☆☆☆)

9세기경 자와섬을 지배하였다는 점, 보로부두르 사원을 조성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가)가 샤일렌드라 왕조임을 알 수 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대승 불교 사원이다. ①은 마우리아 왕조, ③은 쿠산 왕조, ④는 델리 술탄 왕조, ⑤는 굽타 왕조이다.

5번 ③ (★★★★☆)

금군이 수도를 함락하였다는 점, 두 황제가 포로로 잡혔다는 점 등을 통해 정강의 변으로 북송이 멸망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밀줄 친 '수도'는 카이펑이다. ①은 광저우·밍저우·항저우·취안저우 등 해안 도시, ②는 강남 지방의 삼번, ③은 광저우 등 바닷길 연안 도시 및 베이징, ④는 카이펑, ⑤는 뤼양이다.

6번 ③ (★★☆☆☆)

조카마치가 언급된다는 점, 다이묘가 쇼군에 충성하는 대가로 영지 지배권을 인정받았다는 점 등을 통해 (가)가 에도 막부임을 알 수 있다. ①은 나라 시대, ②는 메이지 유신, ③은 에도 막부, ④는 무로마치 막부, ⑤는 아스카 시대에 있었던 사실이다.

7번 ① (★★☆☆☆)

니케아에서 공의회를 개최하여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검증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가)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임을 알 수 있다. ㄱ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ㄴ은 옥타비아누스, ㄷ은 옥타비아누스이다.

8번 ① (★★★★☆)

샤프루르 1세가 전성기를 이끌었다는 점,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가)가 사산 왕조 페르시아임을 알 수 있다. ①은 사산 왕조 페르시아, ②는 아바스 왕조, ③은 우마이야 왕조, ④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⑤는 굽타 왕조이다.

9번 ③ (★★★★☆)

(가)의 국왕이 정복지 곳곳에 교회를 세워 크리스티교를 전파한 공을 인정받아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았으므로 (가)는 프랑크 왕국이다. (나)는 고트족을 물리친 이교도 국가이자 프랑크 왕국과 같은 시대에 인접해 있었던 이베리아반도 국가이므로 우마이야 왕조이다. 프랑크 왕국과 우마이야 왕조는 732년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교전하였다.

10번 ⑤ (★★★★☆)

자료 속 '이곳'은 예루살렘이며, 동방에서 온 신흥 용병은 셀주크 튀르크, 이곳을 현재 지배하고 있는 가톨릭 국가는 예루살렘 왕국이다. 따라서 제1차 십자군 원정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예루살렘 왕국이 건국된 1099년부터 12세기 초까지로 추정할 수 있다. ①의 통일법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선포하였으므로 16~17세기, ②의 필리프 4세와 로마 교황청이 대립하던 시기는 아비뇽 유수의 배경이므로 14세기 초, ③의 이탈리아 중부 지역이 교황에게 기증된 것은 피핀 때이므로 8세기 중엽, ④의 베네치아 상인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상륙한 것은 제4차 십자군 원정기이므로 13세기 초, ⑤의 아라곤이 재정복 운동을 전개한 시기는 11세기~15세기이다.

11번 ④ (★★★★☆)

오스트리아와 적대 관계라는 점, (가)와 오스트리아 간 전쟁의 결과로 이탈리아가 베네치아를 획득하였다는 점, 그로부터 4년 뒤(가)와 프랑스 간 전쟁이 발발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가)가 프로이센임을 알 수 있다. 본 문항은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과 독일의 통일 과정을 연대에 맞게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①은 미국, ②는 영국, ③은 러시아, ④는 프로이센, ⑤는 사르데냐이다.

12번 ② (★★☆☆☆)

제시된 자료는 홍무제가 발표한 육유이다. 명 홍무제가 북방 초원으로 몰아낸 (가)는 몽골이다. ①은 명, ②는 몽골, ③은 청, ④는 거란(요), ⑤는 금(여진)이다.

13번 ⑤ (★★☆☆☆)

프랑스 은행을 정립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가)가 프랑스 통령 정부임을 알 수 있다. 통령 정부 시기는 1799년~1804년이다. ①은 1848년, ②는 1783년, ③은 국민 의회 시기인 1791년, ④는 국민 공회 시기인 1794년, ⑤는 통령 정부 시기인 1802년이다. 참고로,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맺은 휴전 조약은 아미앵 조약이다.

14번 ⑤ (★★★★☆)

자국 청년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 반제국주의 운동을 계획하였다는 점, '통킹'이라는 베트남 지명이 등장한다는 점 등 간접적인 정보를 종합하면 (가)가 판보이쩌우임을 추론할 수 있다. 참고로, 청년의 일본 유학을 마련한 것은 동유 운동에 대한 단서이다. ①은 호치민, ②는 람 모한 로이, ③은 미드하트 파샤, ④는 틸라크, ⑤는 판보이쩌우이다.

15번 ② (★★★★☆)

사파비 왕조가 존속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16세기~18세기 초반임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 신교의 자유가 완전화되었다는 점에서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1648년 무렵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밀줄 친 ㉠ 기간이 1648년 ±30년 무렵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①에서 앙카라 전투가 발발한 것은 1402년, ②에서 영국이 공화정을 선포한 것은 청교도 혁명이 끝난 1649년, ③에서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된 것은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던 1806년, ④에서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가 멸망한 것은 오스만 제국의 술탄 셀림 1세 치세인 1517년, ⑤에서 프랑스가 위그노 전쟁으로 혼란을 겪은 것은 낭트 칙령 선포 이전인 1562년~1598년이다.

16번 ③ (★★★★☆)

중국에서 크리스티교를 허용한다는 점을 통해 (가)가 텐진 조약(1858)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이 독일의 산둥성 이권을 모두 양도받았다는 점을 통해 (나)가 일본의 대중국 21개조 요구(1915)임을 알 수 있다. ①은 난징 조약(1842), ②는 변법자강 운동(1898), ③은 대중국 21개조 요구, ④의 최혜국 대우는 미일 화친 조약 등, 영사 재판권은 미일 수호 통상 조약 등이며, ⑤의 기간은 1895년~1904년이다.

17번 ⑤ (★★★★☆)

독일과 소련이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라는 점, 독일이 불가침의 약속을 깨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점, 모스크바를 지켜내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통해 (가) 인물이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임을 알 수 있다. ①은 나치 독일의 히틀러, ②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③은 미국의 윌슨, ④는 러시아 제국의 니콜라이 2세, ⑤는 소련의 스탈린이다.

18번 ⑤ (★★★★★)

발칸 전쟁에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과 함께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대항하였다는 점, 발칸 전쟁 이후 오스만 제국과 동맹을 맺었다는 점 등을 통해 (가)가 불가리아임을 알 수 있다. 불가리아는 제1차 세계 대전 도중 오스만 제국과 함께 동맹국 측에 가담하여 협상국(연합국)과 대립하였다. ①은 독일, ②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③은 러시아, ④는 ⑤는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이다.

19번 ④ (★★★★★)

‘베를린이 중앙아프리카의 판도를 한 차례 바꾼’ 시점은 ‘독일 제국이 본색을 드러내기 전이며, 그때 당시 ‘독일의 재상은 모든 열강에 이익이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므로 지난 30여 년 사이에 독일의 대외 정책이 유럽의 현상 유지와 프랑스 고립화를 목표로 한 정책에서 공격적인 대외 팽창을 피한 세계 정책으로 바뀌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독일의 재상’은 비스마르크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앙아프리카의 쪼갬을 경계로 유역을 남북으로 나누어 가졌다는 점에서 베를린 회담(1884)에서 콩고강 일대를 남북으로 나누어 가진 사건을 연상할 수 있는데, (가)는 광대한 식민지를 가지지 못하고, 식민지를 국왕의 사유지처럼 취급하면서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으므로 벨기에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콩고강 일대를 분할하였고, 콩고강보다 북쪽에 있는 베냉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였다는 점,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독일 제국의 식민지를 양도받았다는 점 등을 통해 프랑스임을 알 수 있다. ㄱ은 독일과 일본, ㄴ은 벨기에, ㄷ은 이탈리아, ㄹ은 뽕골과 프랑스이다.

20번 ② (★★★★☆)

독일의 통일 과정 중 동독에서 자유 총선거가 실시된 것은 1990년이다. ①의 바웬사가 자유 노조를 결성한 것은 1989년, ②의 엘친이 소련의 해체를 공식화한 것은 1991년, ③의 레이건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한 것은 1980년대, ④의 류사오치가 홍위병의 공격으로 실각한 것은 문화 대혁명 기간인 1969년, ⑤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표방한 것은 1985년이다.

영역별 예상 등급

한국사 영역	
1등급	40점 ~ 50점
2등급	35점 ~ 39점
3등급	30점 ~ 34점
4등급	25점 ~ 29점
5등급	20점 ~ 24점
6등급	15점 ~ 19점
7등급	10점 ~ 14점
8등급	5점 ~ 9점
9등급	0점 ~ 4점

동아시아사 영역	
1등급	45점 ~ 50점
2등급	40점 ~ 44점
3등급	34점 ~ 39점
4등급	27점 ~ 33점
5등급	19점 ~ 26점
6등급	13점 ~ 17점
7등급	8점 ~ 12점
8등급	4점 ~ 7점
9등급	0점 ~ 3점

세계사 영역	
1등급	46점 ~ 50점
2등급	42점 ~ 45점
3등급	36점 ~ 41점
4등급	25점 ~ 35점
5등급	17점 ~ 24점
6등급	10점 ~ 16점
7등급	6점 ~ 9점
8등급	3점 ~ 5점
9등급	0점 ~ 2점